

회의 일시 2024. 12. 9. (월) 18:00
 회의 장소 기초학문관 51205
 회 차 57 - 임시 01
 서 기 자연과학캠퍼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양지웅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결석	자연과학대학 ○
정보통신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공과대학 ○
건축학과 ○	약학대학 ○	생명공학대학 ○
스포츠과학대학 ○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성균융합원 ○
동아리연합회 ○		

전체 단위 수: 12 (정족수 8) / 출석 단위 수: 11

1. 단위별 사업 보고

임시 제2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위임.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총학생회

가. 자유전공계열 대응 TF 신설의 안

총학생회장: 자유전공계열이란 모든 학부/학과로 진입이 가능한 계열을 뜻함. 2025년 신설되는 학과로 총 280명 정도로 모집 예정임. 제외되는 학과는 의/약학계열, 사범대, 예체능, 첨단학과, 건축학과, 응용AI융합학부 등이 있음. 전공선택의 자유도를 최대한 부여해줄 예정이며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임. 기존 공학계열의 경우 성적에 따라 나눠서 진입하였지만, 자유전공계열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음. 그로 인해 2024년에 비해 2025년도에는 모집인원이 달라짐. 이로 인해 자연과학계열 17명 감소, 전자전기공학부 30명 감소, 공학계열 80명 감소 등 총 150명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원이 줄어드는 과로 인해 학과별 인원 쏠림이 우려됨. 전공진입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수강정원 및 강의장소 등 인프라 문제 발생가능함. 전공진입 인원이 감소한 학과 학생회비 분배 등의 문제가 있음.

조금 더 가까운 문제는 새내기새로배움터 배정 문제가 있음. 기본적으로 새터의 경우 학생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전공의 새터로 이동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이 경우 정시 합격생의 경우 새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정시합격생 인원이 110명에 달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1안: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에게 기존 대계열제에 한해서만 선택허용 - 이 경우 문이과 구분 및 자과대/생공대/공대로만 구분할 수 있어 선택폭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은 높아짐. 또한 인원이 많은 학과인 만큼 어느정도 인원 변화도 반영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신입생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

2안: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모든 단과대 새터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임. 자유전공계열의 취지를 생각하면 2안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시합격생 인원이 110명에 달하는 만큼 수요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또한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좀 더 먼 의미에서 봤을 때 서로 단과대가 없는 학생들이 각종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 그리고 학과별 인원 쏠림 우려가 있음. 여기까지 자유전공계열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이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의 사항 받겠습니다.

정보통신대학 회장: 만약 2안으로 간다면 따로 단과대마다 받을 수 있는 티오가 제한된게 있는지 궁금.

총학생회장: 학교 측에서는 2안으로 가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숲용, 정통대, 융합원 등에 쏠림 현상 우려되긴 함. 또한 1안으로 하면 공과대, 자과대, 생공대에 쏠릴거라 해당 단과대에만 부담을 주는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임.



건축학과 부회장: 학생회비 분배 관련해서, 만약 학생회비가 부족해지는 학과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 지원없이 본 단위가 가지고 있는 학생회비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로 인해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학생회비 배부 문제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라 아직 논의된 바는 없음. 하지만 학생회비를 기본적으로 나눠봤을 때 기본배부액, 납부액비례액, 학생수비례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비례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단과대마다 동일하게 배부되지만, 납부액비례액과 학생수비례액은 학생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를 감안해서 자유전공계열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큰 차이없이 기존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긴 함. 따라서 학과별 쓸림으로 인해서 학생이 부족해지는 학과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좀더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전공계열 대응 TF를 구성하려고 함. 이 경우 각 단위 대표자들, 총학생회, FG 등 유관부서와 함께하는 TF가 될 것. 여기서는 새터 문제부터 시작하여 전공배정 문제, 학과별 쓸림으로 인한 수강신청 과부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임. 이러한 자유전공계열 대응 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찬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음. 각 단위별로 한명씩 거수하여 의사를 표현해주시기 바람.

자유전공계열 대응 TF 신설에 찬성함.

-> 가결 (찬성 11 / 반대 0 / 기권 0)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자유전공계열 대응 TF의 희망 단위를 수합하도록 하겠음. 희망하는 단위는 거수해주기 바람.

희망: 6단위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 성균융합원)

총학생회장: 혹시 추후에도 TF에 참여하고 싶은 단위가 있다면 따로 연락주면 반영하겠음. 이상으로 논의 안건 마무리 하겠음.



3.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1) 총학생회

가. 학생사회 협력사업: SCATCH PROJECT 소개

총학생회장: 올해 총학의 방향성을 중앙운영위원회와 더 함께 하는 방향으로 넓히고자 함. 그 일환으로서 하나로 SCATCH PROJECT를 상정하게 되었음. 이 경우 총학생회에서 먼저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학생회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단위를 소개하고, 이후 단과대 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측에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총학생회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와 같이 안건을 상정해 나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자 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추후 소개할 단위요구안과도 연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음. 구체적 예시로는 전대 총학생회에서 경제대학 학생회와 함께 진행한 인문관 라운지 사업이 있음. 단과대 학생회에서 요청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단과대 학생회 차원에서 그칠 수 있었지만, 총학생회가 함께하면서 그 힘을 실어주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던 사업임. 이와 같은 단과대 단일 단위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업을 총학생회와 다른 단과대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주면 될듯함.

나. 단과대학(학부)별 단위요구안 소개

총학생회장: 단위요구안의 경우 중운-총학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학교 본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임. 개별단위 학생회비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학교 본부의 예산 지원 협조를 받기 위함임. 각 단위별로 임기 동안 진행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 후,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면 총학생회에서 피드백 후 함께 단위요구안을 작성할 예정임. 완성된 단위요구안을 바탕으로 학교 본부와 학생자치 예산 및 사업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 요함. 양식은 추후 전송 예정이며, 전체 학우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지 고려해서 작성 바람. 일례로 작년에 생명공학대학에서 제시한 것이 생공관 라운지 개설이었는데, 이 경우 생공대 학생들만 이용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모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반려당했던 경우가 있음.

또한 단위요구안 작성전에 단과대 행정실에 먼저 문의하여 행정실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제외해주고, 단과대 행정실에서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해서 작성해주길 바람. 즉 학생회 차원의 공약이 조금 더 우선시 되게끔 하시면 됨. 예시로는 작년 성균융합원에서 융합원의 밤을 더 크게, 건축학과에서는 건축 레이저 커팅기 설치, 다른 단위는 시설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음. 이러한 단위요구안의 경우 2025학년도에 등록금 인상 압박이 매우 거셀것으로 예상되기에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기보다는 인상을 통해서 학생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단위요구안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요구안을 토대로 학교 본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학생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함.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초반에 제출해야하므로 조금 일정이 빠빠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각 단과대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학사정책국에 전송하고, 학사정책국에서 검토 후 피드백을 드릴 예정. 이를 통해 1월 중순까지 최종 단위요구안을 작성할 계획임. 따라서 12월 말까지 상정할 안건들을 생각해주시면 됨.



다. 단과대학 문장 제작 사업 소개

총학생회장: 최근 총학생회에서는 더욱 학교 브랜딩화에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있는 중임. 특히 2023년도 총학생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브랜딩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였고, 에스카라 등 큰 성공을 경험하였음. 이때 논의되었던 것 중 하나는 단과대학 문장 제작 프로젝트였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했지만 부결되어 폐기되었음.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문장 제작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자함. 성균관대학교에는 총 19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가 있고, 각각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 단위 내부의 소속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이런 상황에서 각 단위를 상징하는 문장 아래 통일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함. 각 단위를 상징하는 심볼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내부 및 외부 행사에서 의미있게 활용하면 소속감을 확립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학생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별로 별도 제작하는 것으로 가닥 잡았음. 즉 중앙운영위원회 단위로 제작이 될 예정이며, 그 단위는 다음과 같음. 자연과학캠퍼스의 경우 공과대학과 건축학과를 분리해서 각각의 특성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예시를 보여주겠음.

(총학생회장: 시안 예시, 레퍼런스 자료 중앙운영위원회 카톡방에 업로드함)

이것은 1차적으로 생각해본 디자인일뿐임.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요소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공과대학의 경우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등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만한 조형물들을 생각해두면 될 듯. 진행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먼저 단과대학 문장 기획안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단과대학에서 1차 시안을 피드백하고 필요한 것들을 수합하면 총학생회와 합동회의를 계속 진행하며 궁극적인 문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를 통해 입학식, 축제, 학과별 체육대회나 행사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 그렇기에 우선 12월 30일까지 각 단위 위원회를 통해 단위를 상징하거나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수합해주면 감사하겠음. 수합된 결과는 중앙집행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주면 됨. 1차 시안을 제작하기 위한 의견 수합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제출해주시면 좋을 듯.

따라서 입학식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려고 하며 필요시 계속해서 합동회의를 진행할 것임. 질문사항 받겠음.

건축학과 부회장: 디자인만 제출하면 제작은 총학생회에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안을 먼저 작성해서 넘겨주면 그 이후에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각 단위에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아이디어 정도만 제시해줘도 총학생회 측에서 반영하여 만들어 나갈 예정. 만약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더욱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자연과학대학 회장: 들어갔으면 하는 요소나 심볼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한지? 학생회 내부에서만 정하면 되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각 단위에서 자체 판단으로 진행하면 됨. 단, 학과 학생회와는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중앙집행위원장 내정자: 문장 제작관련하여 첨언할 것 있음. 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처럼 학과가 많은 곳은 하나로 정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레퍼런스 보면 펜, 월계관 등 상징물로 통합하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세부적인 무언가로 국한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총학생회장: 안건 상관없이도 질의사항 받겠음.

성균융합원 부회장: 자유전공계열 학우들이 각 단위별 총 OT도 참여하는 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모든 단위가 OT를 진행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조사는 못함. 하지만 이런 사항도 TF에서 논의하여 해결해나갈 요소라고 생각함.

자연과학대학 부회장: 자유전공계열의 LC 배정이 궁금함.

총학생회장: 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총 4개 계열의 LC가 있는데 하나 추가해서 총 5개 계열로 진행하는 방안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부회장: 자유전공계열이 원하는 전공의 새터를 선택해서 가는 2안에 관하여, 원하는 전공을 수합 받는건 TF가 하는지, 그 결과는 몇주차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수합은 학부대학 혹은 FG가 담당할 것임. 결과는 수시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여 1월 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하지만 정시합격생의 경우 2월 20일까지 추가합격이 발생할 것이므로 정확하게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듯.

자연과학대학 부회장: 자유전공계열 대응 TF의 1,2안 결정은 오늘 의결하는지 궁금.

총학생회장: 우선 이렇게 있다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고, 의결 자체는 23일 연석중앙운영위원회때 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부회장: 자유전공계열이 총 280명인데 문이과 따로 인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캠퍼스, 문이과 구분없이 완전 자유롭게 갈 수 있음.

정보통신대학 회장: 새터 일정은 언제 확정되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2월 26~28일로 예상됨.

이상으로 임시 제1차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칩. (폐회선언) 18:31



< 자연과학캠퍼스 >

총학생회장	전희도
자연과학대학	함서현
정보통신대학	박성광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원태연
공과대학	이재민
건축학과	신준호
약학대학	김인혁
생명공학대학	박세현
스포츠과학대학	
성균융합원	김영소
동아리연합회	서형대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